

위대한 태양의 축복 속에 주체조선은 백승떨쳐가리 다함없는 경모의 정 굽이치는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충정의 마음이 강산에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 탐창전기념일.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았다.

민족의 대경사, 특히 시민들이 떤이어 더져오른 적통적인 해에 맞이하는 탐창전기념일이어서인지 태양의 성지를 찾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훗송의 신심이 더욱 넘쳐흐르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고 우리 영원한 마음의 기둥이며 승리의 상징입니다.』

주체의 최고성지에로 뜨겁게 이어지는 사람들의 물결에 이끌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서니 우리 눈앞에 해빛같이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이 중엄하게 안겨왔다.

태양의 미소에 온기를 맡기고있느라니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을 은세상에 선포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모습이 어려오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호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아 더욱 가슴뜨거워질수 밖에 없었다.

역사의 춘연한 낸데들마다에서 조선로동당기발을 백전백승의 전투적끼치로 향유리시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당파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아온 불멸의 업적이 어려와 누구나 쉬이 말걸음을 매지 못하고 있었다.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리와 삶과 인사를 드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중구역에서 살고있는 강은주동부의 직동원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당창전기념일을 맞고보니 주체조선의 무진악한 국력을 은세상에 파시면서 윤례의 역사적사蹟을 끝내 거칩니다. 반반년민족사의 대경사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진정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명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따뜻한 정도를 떠나 존엄높은 우리당의 자랑스러운 오늘에 대하여, 주체의 학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불세의 위용에 대하여 어찌 생각이나 할수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70여년의 장구한 기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별도일에 조선로동당은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환길로 풀기자케 이끌어왔다.

얼마나 간고하고 시련에 찬 나날이었던가.

모든것을 빙미우에서 시작해 야



하는 새 조국건설과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 새마이우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일떠세우면서 나날 우리 수령님의 실종에서 백두의 눈보라가 쉬임없이 풀풀쳤다. 내 조국이 제4주주의의 침략과 암살의 광풍을 쳐갈기고 지주, 지법, 자위의 사회주의성체로 우뚝 일떠설수 있었을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견지하신 철학한 지주로선의 위대한 승리였다.

그 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막아서는 시련들을 맞았거나 아가신 일지 않할 사업들은 그 엄마인가, 전선의 용사들을 찾아 불비속을 헤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덮인 병길에서 미끄러지는 차를 밀고오르기도 하신 우리 수령님, 평범한 과학자의 과학적신념을 애국의 길에서 보석처럼 빛내여 주시고 지난날 지지리 고생속에 살아온 로동자, 농민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바꾸하시고 나рав의 주인자자와 심어주기도 하시였다.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찾으시며 우리당의 자주로선관찰에로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신 우리 수령님의 병도 아래 이 땅에는 얼마나 위대한 전변의 서사시가 새로재개되고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는 또 얼마나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던가.

온 가족과 함께 태양의 성지를 찾은 대성구역에서 살고있는 유경호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도 데없이 선군이라는 말을

외울 때면 우리 장군님 생각으로 가슴이 젖어들니다. 역사에 인민을 위한 정의를 많았어도 인민의 강행군길에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군관한 도래가 마련되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부르는 행복의 려명이 불타울랐다. 나라는 운명이 판가리되던

최악의 시련 속에서 어머니당의 불은 기록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인민사랑으로 더 뜻을 둘여졌다.

선군, 그 길은 스스로 험난한 가시임불길이었다. 역사의 초행길이 어서만이 아니었다. 고난의 행군길을 헤치는 이들마저는 고난과 인민에게 겪는 아픔을 자신의 온몸으로 털기시면 우리 장군님의 심증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형언할수 없는 짐승을 안으시고 그 누가 내 마음 품어줘도 물려준대도 희망하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구절을 마음 속으로 부르고 또 부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걸단과 선군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제국주의에 무리가 달려들면 그 줄임한 시기 바로 총대안이 나파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강위력한 총대안에 인민의 행복도 후손만대의 번영도 달려있기에 선군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히 시며 선군의 선길에 거룩한 자속을 풀임없이 새겨가신 우리 장군님.

울려나왔고 당을 진정 운명의 등대로. 어머니로 밀고 따르는 억척 같은 신념의 만세우에서 일심단결, 혼연일제의 화원은 더욱 백화 만발하였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며 더욱 빛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학 교원인 김은길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려명거리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꾸려보니 이 고마움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의 사랑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었

습니다. 당의 뜻을 높이 발들여 우리 혁명의 일보에 후대교육사업과로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살은것이 저의 성지입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만리마시대를 빛내이는 황홀을 창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마음과 마음들이 태양의 성지로 끌려고 있었었다.

갖가지 이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나고 물기를 머금은 잔디들이 주둔

주단을 펴놓은듯 일제지계 절처진

광장공원, 천나무, 분비나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키높이 자란 나무들,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쳐가는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당장건사적관

참관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맞으며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내각, 근로단체, 성, 종양기관 일군들이 10일 당창건사적관을 참관하였다.

해방 산기슭에 자리잡은 사적관은 관람객들은 주체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창건의 역사적위업을 및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가 접대성되여있는 사적관의 여려곳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김소하게 무려전 걸무실들과 응접실, 회의실을 돌아보면서 당의 조직로선과 정치로선을 환히 밝혀주시고 광활한 군중을 당의 두려움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을 민족의 당으로 위하여 북부하는 혁명적당, 참다운 인사들로 이루어진 당을 위하여 북부하는 혁명적당, 참다운 당과 전시물들은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시여 항일혁명주사들과 함께 계시던 집과

보관하고계시던 뜻깊은 기념사진앞에서 그들은 절세위인의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를 실장길이 걸감하였으며 김책통치처럼 당의 사상과 행동에 끝없이 충실했던 일군, 인민을 위하여 멸사부무하는 우리 당의 참된 충신으로 삶을 빛내일 일념으로 가슴불태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진당, 전국, 전군위업 실현을 위하여 항일혁명주사들을 전국각지에 파견하시고 당과 주의주장이 다른 수많은 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을 만나시여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한 사자료들과 전시물들은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에 개선

못가, 당창건사적비도 돌아보았다.

그들은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고 백승의 전통을 마련해주시었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천만년미래를 꽂아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월한 병도와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및나고있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병도따라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태월한 병도와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및나고있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드릴것은 천연덕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치신

국방력강화의 길, 그 길은 혁명의 종대로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역사의 힘을 빛날

아고나가는 두정의 길이었다.

군사는 국사중의 제일국사

이며 국방용역은 무장조국전

설의 생명선이다. 군사와 국

방용역을 떠나서는 경제강국

도 건설할수 없으며 나파와 인

민의 안녕도 생각할수 없다. 우

리 나파에서는 군사가 첫째이고

국방용역이 선차이다.

바로 이런 드넓지 않은 결심을

더욱 굳히시며 국방력강화를

위해 하며 우리 장군님의 길을

걸고 걸으신 우리 장군님이시

었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은 절실히 위생이 아니었다.

나파의 인적 및 물적자원을 최우

맑은 물속에서 노닐고있는 고니, 물고리를...』

그 수려한 풍기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경모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여주었다.

시간이 갈수록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세차게 굽이치는 사람들의 물결,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만들어 우리 당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불폐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병도를 축직하게 만들어갈 신념의 대하, 풍성의 대하였다.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반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뿐만 아니라 기세에 기어이 실현하는 것이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철석같은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배워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를 과학기술로 반드시 비약의 1번수, 자력자강의 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와 만난 조선인민군관도 대학생도 이런 결의에 넘쳐있었다. 그 힘찬 목소리들에는 언제나 태양의 성지에로 마음달리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가 비껴있었다.

정녕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떠나고 인민은 당을 어머니로 끌어안고 싶어하고 따르는 혈연의 뉘를 더욱 굳건히 더해주는 태양의 성지였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나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눈앞에 려명거리의 풍자들이었다.

태양의 성지에서 시작된 최후승리의 희망이 온 강성을 위로했다. 세계는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우승의 힘과 승기를 풍靡발시켜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 강국을 어떻게 일떠세우는가를 뚜렷히 보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한 열민
사진 안성혁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신의주시에서 계속성황리에 진행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총진군길에서 깊은 10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온 나라 인민의 기쁨과 환희를 더해주며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신의주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존엄높은 불교의 조선로동당을 우리민족에게 짐짓으로 부르는 노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천민민족찬가가 울려퍼지는 정안북도에 솔직창은 편안정침을 이루고 있다.

정안북도인의 일꾼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울릉을 보았다.

애국가로 시작된 광운부대에는 경운악《내나라 제일로 좋은가》, 《단숨에》, 남성합창《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네성중창《조국과 나》, 《인생의 영광》, 남성중창과 남성합창《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가무《보관듯이》, 무용《달려 가자 미래로》, 라프즈《청진시절》을 비롯한 다채로운 충복들이 울었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에서 광운국가합창단의 예술들은 역사의 모정·봉사를 헌터며 이 땅에 기적의 말려나온 아들들을 스스로로 통당에 대한 소박하고 진정된 목소리로 울려져진 노래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뜨거운 격정으로 가슴 뛰여왔다.

네성독창《아버지와 부모님》, 혼성중창과 남성합창《그이 없인 못살아》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전투와도 같은 임민을 한풀에 안아 온명의 기둥이 되여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천만군민의 열회같은 신뢰심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황금나루 농금나루 산에 심었소》, 《영변의 비단체녀》, 《황금산다랑》, 《오늘의 창성》 등 시대의 명곡들은 로동당의 풍속에서 날아온 빛나는 정부도민들의 기쁨으로 활황을 특색있고 기름진 음악형상으로 노래되면서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친절한 활동하는 젊음에 넘쳐 세계를 통하여 비

약하며 선전하는 내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황홀하고 기막히는 물동에 달이 점쳐보인

광운부대의 예술인들의 무용종목들도 울여주며 천만마리를 향해 헌정해 주었다.

인상적인 광운에 심취된 관람자들은 종목들이 물들 때마다 일어서 무대에 올라 출연자들에게 꽂디밭들을 인계주고 명예우들의 수표도 기념으로 수첩에 남기였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명도따라 사회주의 승리의 한길로 억새계 걸어갈 정안북도인

들의 춤으로 간직한 우리인민의 혁명적본래가 살아이승취는 광운》이라 고장된 유금치 못하

면서 자기들의 적돌피 심정을 토로하였다.

주 학성 수 풍발 전 소 기 사장은 혁명 생애의 나날 정부당을 찾고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묘고가 광운종목들마다 어려

있어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대놓았다.

실희시 《정복도여 빛나가라 사회주의의 봉원》을 들으며 수풍발전소는 조선의 보배

라고, 그래서 광화국의 국장에도 저 밤전소를

에 펼쳐 가시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강대국으로 물들이 용성번영할것이라는 역적불법의 친절을 판관자들의 심장마다에 길이 새겨주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불길에 위용파 세계를 향해 풍물이나가는 내 조국의 역

세 기상유 파시한 광운은 관중들에게 키다만 충격과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옹연을 본 각계층 군중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마리를 변함 없이 걸어갈 원민의 철의 신념파 의지를 배해준 혁명적인 광운》, 《사회주의를 생

명으로 간직한 우리인민의 혁명적본래가 살아이승취는 광운》이라 고장된 유금치 못하

면서 자기들의 적돌피 심정을 토로하였다.

울해 우리 농장에서는 가을과 고온현상

이 지속된 불의한 조건에서도 지난해보다 정보당 수화고를 훨씬 높이는 성과를 더욱 확하였다.

앞으로도 한그루한그루의 파일나무마다

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 빅 파주령지는 사회주의의 땅을 훌륭워나가겠다.

김제북 구장지구관련합기업소 풍수단장

급진중대장은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빛나여 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북돋아온 이번 광운은 추억에 남을 최상의

공연이다. 광운을 통하여 경에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풍진 우리를 당할자 이 세상에 없으며 그이의 명도를 따르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다. 지역생생의 위력으로 서현단장을 더 높이 쟁이을 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만미마 대경기로 힘력을 부어주겠다고 하였다.

최금주 풍암로수산사업소 《조선로동당의 땅-청년네성영웅》로 선장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명성높은 예술단체들의 광연을 보니 즐기자고 역세 황도의 힘으로 내 조국의 기상유 남방에 펼쳐 가는 위대한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의 정을 더욱 금할

수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깊은 10월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 펴진 노래들은 온 나라인민을 한풀에 알아 사회주의의 오직 한길,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끄는 어머니당에 대한 충가이라고 하면 서 횡금해의 새 해사자를 절처운 우리 당의 명도를 받들어 《조선로동당의 땅-청년네성영웅》의 빼고동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갈

경의를 표명하였다.

광운은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비약의 열풍 휘몰아치는 철의 기지

장내를 끄집어 풀어놓은 철의 힘! 아내며 철의 힘! 남성합창《나가자 조선이 병진 앞으로!》, 남성3중창과 남성합창《사회주의 오직 한길로》는 위대한 명진의 힘을 변함없이 주께들과 미세의 종국적멸망을 선고하는 승전의 유대사변들을 펼쳐 이룩하며 사회주의의 강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용한 모습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장내를 끄집어 풀어놓은 철의 힘! 아내며 철의 힘! 남성합창《나가자 조선이 병진 앞으로!》, 남성3중창과 남성합창《사회주의 오직 한길로》는 위대한 명진의 힘을 변함없이 주께들과 미세의 종국적멸망을 선고하는 승전의 유대사변들을 펼쳐 이룩하며 사회주의의 강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용한 모습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한국전 전국민 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명도를 충정으로 발휘해온 조선스러운 전통을 이어 만리마대 고조선 군의 입장에서

일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

미세가 조선은 앞으로 백년이 같아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전선기술을 받아들여 주께들이 헌터며 혁명의 힘을 펼칠 것을 기록으로 전해온 철의 힘》의 치적을 펼쳐나온 당에 대한 수령님의 힘으로 기록으로 전해온 철의 힘을 펼쳐나온 철의 힘!

한국전 전국민 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명도를 충정으로 발휘해온 조선스러운 전통을 이어 만리마대 고조선 군의 입장에서

일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

미세가 조선은 앞으로 백년이 같아 말씀하시였다.

한국전 전국민 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명도를 충정으로 발휘해온 조선스러운 전통을 이어 만리마대 고조선 군의 입장에서

일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

미세가 조선은 앞으로 백년이 같아 말씀하시였다.

한국전 전국민 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명도를 충정으로 발휘해온 조선스러운 전통을 이어 만리마대 고조선 군의 입장에서

일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

미세가 조선은 앞으로 백년이 같아 말씀하시였다.

한국전 전국민 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명도를 충정으로 발휘해온 조선스러운 전통을 이어 만리마대 고조선 군의 입장에서

일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

미세가 조선은 앞으로 백년이 같아 말씀하시였다.

한국전 전국민 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명도를 충정으로 발휘해온 조선스러운 전통을 이어 만리마대 고조선 군의 입장에서

일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

미세가 조선은 앞으로 백년이 같아 말씀하시였다.

한국전 전국민 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명도를 충정으로 발휘해온 조선스러운 전통을 이어 만리마대 고조선 군의 입장에서

일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

미세가 조선은 앞으로 백년이 같아 말씀하시였다.

한국전 전국민 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명도를 충정으로 발휘해온 조선스러운 전통을 이어 만리마대 고조선 군의 입장에서

일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

미세가 조선은 앞으로 백년이 같아 말씀하시였다.

한국전 전국민 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명도를 충정으로 발휘해온 조선스러운 전통을 이어 만리마대 고조선 군의 입장에서

일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

미세가 조선은 앞으로 백년이 같아 말씀하시였다.

한국전 전국민 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명도를 충정으로 발휘해온 조선스러운 전통을 이어 만리마대 고조선 군의 입장에서

일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

미세가 조선은 앞으로 백년이 같아 말씀하시였다.

한국전 전국민 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명도를 충정으로 발휘해온 조선스러운 전통을 이어 만리마대 고조선 군의 입장에서

일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

미세가 조선은 앞으로 백년이 같아 말씀하시였다.

한국전 전국민 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명도를 충정으로 발휘해온 조선스러운 전통을 이어 만리마대 고조선 군의 입장에서

일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

미세가 조선은 앞으로 백년이 같아 말씀하시였다.

한국전 전국민 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명도를 충정으로 발휘해온 조선스러운 전통을 이어 만리마대 고조선 군의 입장에서

일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

미세가 조선은 앞으로 백년이 같아 말씀하시였다.

한국전 전국민 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명도를 충정으로 발휘해온 조선스러운 전통을 이어 만리마대 고조선 군의 입장에서

일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

미세가 조선은 앞으로 백년이 같아 말씀하시였다.

한국전 전국민 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명도를 충정으로 발휘해온 조선스러운 전통을 이어 만리마대 고조선 군의 입장에서

일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

미세가 조선은 앞으로 백년이 같아 말씀하시였다.

한국전 전국민 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명도를 충정으로 발휘해온 조선스러운 전통을 이어 만리마대 고조선 군의 입장에서

일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

미세가 조선은 앞으로 백년이 같아 말씀하시였다.

한국전 전국민 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명도를 충정으로 발휘해온 조선스러운 전통을 이어 만리마대 고조선 군의 입장에서

일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

미세가 조선은 앞으로 백년이 같아 말씀하시였다.

한국전 전국민 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명도를 충정으로 발휘해온 조선스러운 전통을 이어 만리마대 고조선 군의 입장에서

일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

미세가 조선은 앞으로 백년이 같아 말씀하시였다.

한국전 전국민 대

조선로동당 창건 72돐 경축 예술 공연 진행

온 나라가 주체의 불은 당기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한 애국미대고 조전군을 힘으로 다지고 있는 적동적인 시기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2돐경축 예술공연 『위대한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가 10일에 전개되었다.

공연장소인 동평양대극장은 성스러운 당기록에 마치와 낫과 붓으로 인민의 모습을 빛내어주고 새기적인 변화과 거창한 창조로 이 향우에 강성난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준 위대한 우리 당에 대한 뜨거운 신뢰의 정으로 물들이고자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

위원회 무위원회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애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임군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역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로력혁신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세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보았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부, 무관부부들과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었다.

서장 시외 합창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합창 『어머니생일』, 『조선로동당 만세』, 협성4중창 『당을 노래하노라』, 바이올린독주와 너

성3중창 『나는 생각해』, 남성4중창 『인생의 영광』, 무용 『강성부흥이리랑』, 내성독창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혁명의 존엄한 폭풍우를 헤치고 70여성상의 창구한 행로우에 오직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기며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을 한풀에 안아 혁명의 주인, 위호의 창조자로 기워준 우리 당의 위대성을 격조 높이 칭송하였다.

백전백승의 영도로 사회주의조선을 이끌어 강국의 위상을 빛내어주는 위대한 향도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으며 인민의 아름다운 몸과 미상을 활

짝 풀쳐워주는 우리 당에 대한 감사의 정을 담아 높이 울려퍼진 시대의 송가들은 장내를 절없이 격동시켰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체로 우리 당을 인민대중과 혼연 일체를 이룬 불체의 혁명적당, 친절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았다.

자기 힘을 밟고 자기 손으로 사회주의의 풍요를 가꾸어 가는 회员과 평민을 만연한 너성민족당과 남성당창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에 유희일세』, 장제남2중주와 가야금병창 『칠성아래 사파마디』, 협성8중창과 합창 『자력갱생 기치높이 다시 한번 대고조로』, 무용 『자강력의 웃꽃이 걸어갈 천민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세상에 술적으로 강명깊게 형상화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칭찬을 받았다.

전체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천주만대에 걸어 빛내이며 정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더욱 굽게 풍차 당 제7차대회 결정판결을 위한 대고조전장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오고 아날 불리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중앙과 지방에서 경축공연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맞으며 종교과 지방에서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가는 우리 당에 대한 더할 없는 신뢰의 정으로 물들어번지고 있다.

수도 평양의 국장들에서 종양에 출단체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보통봉장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2돐경축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가 열렸다.

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두 생사가 가슴드롭게 둘러켜보게 하는 판현악자극 『높이 끌려온 우리의 당기』, 판현악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빨찌 산노래 런극』,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 『설명 아래 사파비단』 등의 풍부한 창전의 정으로 물들어번지고 있다.

기악과 노래련곡 『걸친의 길로』,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시절』,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 『백두영웅청년행진가』, 『총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 선동시 『원수님께 계시여 우린 이긴다』를 비롯한 종목들에는 혁명생애의 위력으로 천수들의 애민적인 제제암살력을 통증을 무사히하며 짐짓개버리며 대고개의 창자로서 청년학생들로 흥성이 있다.

빛깊은 명절을 맞으며 청년중앙 예술선진대원들이 출연하는 경축공연이 당시 창전기념탑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기악과 노래련곡 『걸친의 길로』,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시절』,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 『백두영웅청년행진가』, 『총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 선동시 『원수님께 계시여 우린 이긴다』를 비롯한 종목들에는 혁명생애의 위력으로 천수들의 애민적인 제제암살력을 통증을 무사히하며 짐짓개버리며 대고개의 창자로서 청년학생들로 흥성이 있다.

평양교예극장과 국립교예단 출연에서는 『10월입니다』, 『어머니생일』 등의 노래선율과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적으로 춤을 추었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10월입니다』, 『어머니생일』 등의 노래선율과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적으로 춤을 추었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세상과 암울한 수령님의 신을 향해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이 열광마다에는 이 향우에 맞아 이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질이라는 철리를 실상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

가을걷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협동벌마다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자

포전 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박 천 군 일 군 들의 사 업 에 서

박천군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본래에 농업전선에서 기어이 대승전고를 울려놓아 적들의 야만적인 제재압살장벽에 포위구를 넣어 떨적거리는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주의 분배원칙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민의 땅과 집에 따라

분배하는 것인데, 동에 의한

분배를 정확히 실시하여 애만

대중의 생산의욕을 최대한 높

일수 있다.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일정에 차례의 실정에 맞게 출

제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

론에 짜고든 결과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증산의 협회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를 위한 정신력을 적극 발달시키는데 있습니다.》

군체임일군들이 가을걷이전

투를 조직화하면서 포조판리

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가 실

제에 되었다.

이렇게 높은 배려로 이 사업은

단순히 생산물분배에 관한 문제

가 아니라 대중의 생산의욕

와 지지도를 한 것이다.

그들이 이 문제에 각별한 관

심을 가지게 된데는 지난 시기

농사결과에 따른 경황과 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일부 농장들에서는 작

업마다 농장건설이 각이하다

고로 토론이 거듭되었다. 그 과정

에 결정된 것은 차기 단위사업

은 차기 전적으로 책임지는

임무를 맡기고 농장원들이

나는 농은 열의를 가지고 농장을

분었다가도 날이 갈에 따라 손

액을 놓고 나았던 것이다.

결국 농장 분배제안에서 포

전담당책임제가 은을 낼 수 없었으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도 떨어졌다.

와우도구역 신령협동농장 일

군들과 농장원들이 강령이 가을

걸이를 지닌해보다 보름 앞당기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재대 제1선 창호에서 서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면을 털쳐 끌어야 합니다.》

이곳 일군들은 베가을과 날달

길을 헤매면서 끝내 대단한 목표를 세웠다. 이것은 강령이 가을

걸이를 지닌해보다 앞당겨

풀내 경황에 기초하여 세운

파악적인 작정이었다.

처음 강령이 가을걸이를 지난

해보다 보름 앞당겨 끌내자고

하였다.

가정의 밝은 모습에 비친 뜨거운 정성

의학연구원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의료일군들은 환자에 대한 뜨거운 정성을 지니는 것과 함께 높은 의학과학기술과 풍부한 립상경험을 소유하여 협진이 됩니다.》

이곳 일군들은 베가을과 날달

길을 헤매면서 끝내 대단한

목표를 세웠다. 이것은 강령이

가을걸이를 지닌해보다 앞당겨

풀내 경황에 기초하여 세운

파악적인 작정이었다.

엄마께 우리는 차지의 너성을

로부여 편지를 받았다.

이들이 보면 편지에 차지의 행복,

사회체의 밝은 모습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엄마께 우리는 차지의 너성을

로부여 편지를 받았다.

그들의 얼굴에 한점 그늘과

비끼가 된다면 차지의 행복,

사회체의 밝은 모습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엄마께 우리는 차지의 너성을

로부여 편지를 받았다.

그는 학생체에 대한 도덕

의식을 암고 하천군을

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어 사

랑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지금도 원창명선생님은 저

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

치료 후 흥분되는 어떠한가,

식사는 규정대로 하는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사기자 김신현

이번 단위들의 교훈은 본래에 서의 평균주의가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며 가을걸이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주의 분배원칙은 본질에

있어서 동민의 땅과 집에 따라

분배하는 것인데, 동에 의한

분배를 정확히 실시하여 애만

대중의 생산의욕을 최대한 높

일수 있다.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생산한 알곡과 운

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

론에 짜고든 결과에 이르렀다.

가을걸이전투가 시작되자 이

것이 그대로 은을 냈다. 운군이

부풀려 끌었다. 군인의 모든

농장원들이 자기가 받은 토건

임무를 헤아리면서 빙하에

집을 짓고 있다. 실정에 맞는 시행

세칙에 따라 영농작업을

분배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

한 요구성을 제기하였다.

가을걸이전투는 일군들이

밀려온 영농작업에 대한

기쁨을 끌어내고 있다. 일군들이

밀려온 영농작업에 맞게 출

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

론에 짜고든 결과에 이르렀다.

가을걸이전투는 일군들이

밀려온 영농작업에 맞게 출

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

론에 짜고든 결과에 이르렀다.

가을걸이전투는 일군들이

밀려온 영농작업에 맞게 출

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

론에 짜고든 결과에 이르렀다.

가을걸이전투는 일군들이

밀려온 영농작업에 맞게 출

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

론에 짜고든 결과에 이르렀다.

가을걸이전투는 일군들이

밀려온 영농작업에 맞게 출

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

론에 짜고든 결과에 이르렀다.

가을걸이전투는 일군들이

밀려온 영농작업에 맞게 출

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

론에 짜고든 결과에 이르렀다.

가을걸이전투는 일군들이

밀려온 영농작업에 맞게 출

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

론에 짜고든 결과에 이르렀다.

가을걸이전투는 일군들이

밀려온 영농작업에 맞게 출

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

론에 짜고든 결과에 이르렀다.

가을걸이전투는 일군들이

밀려온 영농작업에 맞게 출

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

론에 짜고든 결과에 이르렀다.

가을걸이전투는 일군들이

밀려온 영농작업에 맞게 출

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

론에 짜고든 결과에 이르렀다.

가을걸이전투는 일군들이

밀려온 영농작업에 맞게 출

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

론에 짜고든 결과에 이르렀다.

가을걸이전투는 일군들이

밀려온 영농작업에 맞게 출

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

론에 짜고든 결과에 이르렀다.

가을걸이전투는 일군들이

밀려온 영농작업에 맞게 출

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

론에 짜고든 결과에 이르렀다.

가을걸이전투는 일군들이

밀려온 영농작업에 맞게 출

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

론에 짜고든 결과에 이르렀다.

가을걸이전투는 일군들이

밀려온 영농작업에 맞게 출

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

론에 짜고든 결과에 이르렀다.

가을걸이전투는 일군들이

<p

